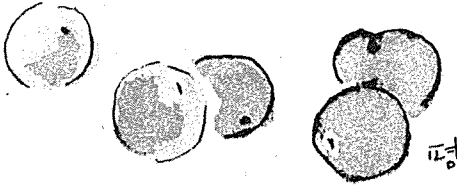


# 기생충 질환의 합병증

## 이 큰 태

연세의대 기생충학교수·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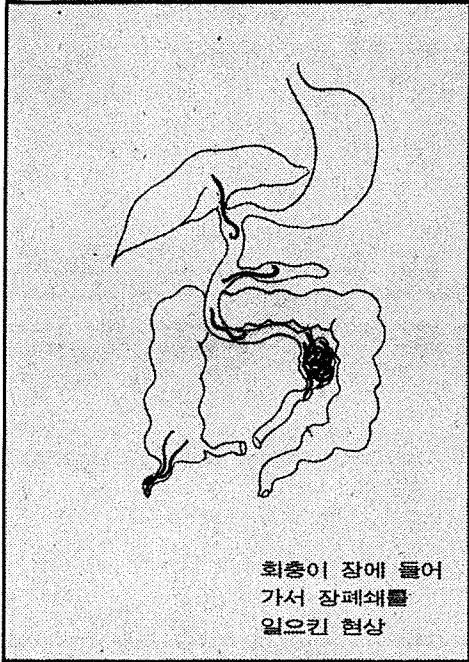
하찮은 작은병이로 생  
각하고 내버려 둔것이  
다른 병이 겹치는 바람  
에 뜻밖의 주의를  
겨우느 일이다. 병  
에나 흔히 있는 일이  
다—그런 기생충병  
에 있어서서는 어떨런지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감기 뒤끝  
에 폐염(肺炎)에 걸려서 죽는 예가  
있듯이 하찮은 작은병이라고 생각  
했던것이 만병이 겹치는 바람에 죽  
음을 가져오는 수가 적지 않다. 기생  
충병에 있어서도 흔히보는 유태 정  
도로 생각하는 회충증(蚊虫症)으로  
왕왕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수가  
있다. 이제 그 몇가지 예를 들어 보  
기로 한다.

**창자를 막으면 장폐쇄가  
때로는 맹장염도 유발하고**

회충: 이 기생충은 작은 창자(小

腸)에 살고 있어 특히 어린이들에  
있어 유태를 앓는 경우가 많다. 그  
런데 배가 아플 정도가 아니라 때로  
는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 수가 있  
는데 즉 회충이 돌돌 뭉쳐서 창자가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고(腸閉鎖), 맹  
장에 붙어있는 충수(虫垂)에 들어  
가 항장에서 이야기 하는 맹장염(虫  
垂炎)에 걸리는 일도 있어 수술을 하  
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또  
때로는 이 회충이 쓸개물(胆汁)이  
나오는 담관(胆管)으로 기어들어가  
서 그곳에서 죽은 경우 담석(胆石)



회충이 장에 들어가서 장폐색을 일으킨 현상

이 생기는 수도 있고 이것이 더 깊숙히 간(肝)으로 들어 가는 경우 죽음을 초래하는 수도 있으며 취장(脾臟)에 들어가서 취장염을 일으켜 생명이 위독한 경우도 생기게 되니 회충이라고해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않된다. 우리나라에는 옛부터「귀신도 모르게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회충이 많고 더구나 의료시설이 없어 진단 치료를 받지 못하는 벽촌에 있어 갑자기 급작스러운 증세로 사망하는 경우에 회충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 빈혈 일으키고 심장까지 나쁘게

십이지장충(채독) : 1센치 내외

의 작은 기생충이지만 작은 창자를 물고 피를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마리가 창차에서 기생하면 그사람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고 빈혈(貧血)을 가져온다. 그 정도가 심할때는 빈혈로 그치지 않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귀가 울고 잠이 잘 오지않고 기운이 없어 일도 못하거니와 나중에는 심장이 약해져서 몸이 붓고 위독하게 된다. 이와같이 몸이 약해지면 다른병-예를 들면 결핵(結核)같은 병에도 걸리기 쉽게 된다.

### 무서운 간경변증(肝硬變症)의 원인

간디스토마 : 이 기생충은 민물고기를 날로 먹었을때 생기는 것으로 그 벌레는 간(肝) 속에 있는 담도(胆道)속에서 살고 있으나 이것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동안 간이 커질뿐만 아니라 때로는 간이 굳어지고(肝硬化症) 배속에 물이 차고(腹死)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간디스토마의 경우 밤눈이 잘 안보이지 않는(夜盲症)수도 적지 않다.

### 간질과 반신불수도 일으켜

폐디스토마 : 본래 이 벌레는 사람의 허파에 기생하나 때로는 이 기생충이 뇌에 가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는 간질(癲癇)의 증세를 나타내는 수도 있고 때로는 중풍에서와 같이 반신불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볼수 있다.

## 눈에 들어가면 시력이 상해

**갈구리 촌충(有鉤條虫) :** 돼지구기를 날로 먹었을때 그 살속에 있던 애벌레가 사람몸에 들어가면 작은 창자에 가서 기다란 성충(成虫)이 되지만 사람이 이 기생충의 알이 묻은 음식을 먹었을때는 이것들은 애벌레가 되어 사람의 뇌, 눈, 근육, 심장, 간장, 폐장, 신장, 유방, 허 등에 들어박히게 됨으로 상당히 심한 증세를 나타내는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이 애벌레(有鉤囊虫)가 뇌에 있을 경우 간질(癇疾)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죽는 수도 있다.

눈(眼部)에 생기는 경우 눈이 몹시 아프고 잘 보이지 않는등의 증세가 온다.

## 간농양·피부궤양 만들고 목숨까지

**이질 아메에바 :**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원충(原虫)이지만 그로 인한 병은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본래 이 원충은 큰창자에 붙어 파고 들기때문에 설사가 나고 피곱똥(粘血使)을 누게 되는 이질의 원인이 되는것인데 그것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이 원충이 혈관으로 들어가 간(肝)으로 가면 그곳에 고름주머니(肝膿瘍)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이질 아메바가 많은 지방에서 흔히 볼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메바는 뇌, 폐, 신장, 피부에 가서 고름주머니를 만들거나 또는 궤양(潰瘍)을 만들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위독한 증세가 생기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은 목숨까지 빼앗기게 된다.

이상 몇몇 기생충병에서 들은 예와 같이 「기생충」하면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때로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예방에 힘써야 할것이며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하루 빨리 치료해버린다는 것이 중요하다.

## 당뇨병의 위험신호

● ● ● ●

당뇨병은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게 나타나는 무서운 병이다. 이미 증세가 확실히 나타났을 때는 때가 늦어, 손을 쓸수가 없는수도 많다.

때문에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다음의 증세는 당뇨병의 위험 신호들이다. 잘 관찰해서 의심이 날때는 곧 대책을 세워야한다.

1. 목이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신다.
2. 오줌을 자주, 또 많이 본다.
3. 밥을 먹어도 언제나 부족하고, 몸은 여윈다.
4. 피로하기 쉽고, 정력이 감퇴한다. 여성은 월경 이상이 온다.
5. 상처가 잘 낫고, 잘 안 낫는다.
6. 나이에 비해 시력이 나빠진다.
7. 갑자기 몸무게가 는다.